



해양경찰 재출범 현판식

외청 재출범 후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외청 재출범 이후 국민의 눈높이 충족과 신뢰받는 해양경찰로 재탄생하기 위한 '혁신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야간, 악천후, 대규모 해양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 구조를 위한 다목적용 대형헬기, 해난사고 시 수색구조 임무 수행을 위한 잠수지원함 등 구조 인프라를 확충했다.

2018년 6월 조현배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해양경찰의 비전과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청사를 인천으로 환원하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해경 부활'을 완성했고 새롭게 도약한다는 해양경찰의 의지를 알렸다.

해경은 국민이 원하는 임무 수행을 위한 객관적 지표를 도입하고, 국민들이 직접 성과를 평가하는 '국민 만족도 조사' 등 성과 경영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스마트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전략반'을 신설, 핵심기술 연구와 장비개발을 추진한다.

해경은 어선 노후화, 레저 선박 등의 운항 증가로 해양사고가 증

가함에 따라 신속한 신고 접수와 출동체계 구축, 구조역량을 강화했다. 해양사고 건수는 ▲ 2016년 2천839건 ▲ 2017년 3천160건 ▲ 2018년 3천434건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빠른 상황처리를 위해 긴급신고접수를 각 지방청으로 일원화했다. 현장 구조대가 신고내용을 동시 청취 가능한 공청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파출소에 구조사와 장비를 배치해 구조형으로 전환했다.

해경은 중국어선 조업 척수(일평균 2017년 192척→2018년 225척)와 불법행위 증가에 따라, 해역별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했다. 중국의 춘절 전(1월 말), 꽃게 성어기(4~6월), 추석 전(9~10월) 등의 시기에 다른 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서해 NLL 집단침범 등 불법 조업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자국 어선의 관리를 요청했다. ▼



잠수지원함



재출범 1주년, 비전선포식 개최



다목적용 대형헬기(S-92)